

중세 해상 제국 베네치아

- 신화인가, 실체인가?¹⁾

남 종 국*

[국문초록]

베네치아의 역사는 그 자체가 신화이다. 특히 다수의 역사가들은 중세 후반 베네치아 공화국이 달성한 위대한 업적을 근거로 베네치아를 중세 해상 제국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해상 제국 베네치아라는 개념이 과장된 신화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힘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차 십자군의 "승리"로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의 8분의 3을 획득했고 이후 동지중해에서 바다 영토(stato da mar)를 건설했다. 14세기 말 이후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본토로 진출해 육상 영토(stato da terra)를 건설했다. 베네치아는 동지중해의 바다 영토와 이탈리아 반도 내의 육상 영토를 여러 강대국에 맞서 꽤 오랫동안 지켜냈다.

그렇지만 영토의 규모라는 외형적 기준에서만 판단할 때 베네치아는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1) 어떤 역사가들은 베네치아를 둘러싼 이미지를 신화로, 어떤 역사가들은 역사적 실체로 간주한다. F. De Vivo (2004), "The diversity of Venice and its myths", *The Historical Journal* 47, p. 169.

주제어: 베네치아, 해상 제국, 바다 영토, 육상 영토
Venice, maritime empire, stato da mar, stato da terra

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식민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제로 베네치아의 해외 영토와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를 모두 합치더라도 전성기의 로마 제국에 비하면 한없이 보잘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세 베네치아는 거대 제국들이 제국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더 나아가 중세 후반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섬나라 베네치아가 비잔티움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등 당시 제일 규모의 제국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베네치아가 제국의 위상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세 말 베네치아의 지배 세력들은 베네치아를 사실상의 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베네치아를 새로운 로마로 간주했고 실제로 베네치아를 제국으로 칭했다. 베네치아의 적들도 베네치아의 위대함을 칭송하거나 베네치아가 제국이 되려한다고 비난했다.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고려할 때 15세기 베네치아는 제국으로 불릴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1. 서론

베네치아의 역사는 그 자체가 신화이다. 뉴욕타임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대를 15세기의 베네치아로 꼽았을 정도로 베네치아는 믿기 어려운 신화와 같은 업적을 이룩했다. 베네치아를 지칭하는 별칭인 “지배하는 자”(La Dominante)는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을 상기시켜 준다. 1363년 베네치아에 머물고 있었던 시인 페트라르키는 “이것은 배가 아니라 바다의 표면에서 헤엄치는 산이라고 말했을 걸세.”라면서 지중해와 흑해로 출항하는 선박들의 위용에 감탄했다. 1494년 베네치아를 방문한 프랑스 대사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종탑과 수도원에 감탄하며 이 모든 것들이 물 위에 건설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²⁾

2) 로저 크롤리(2011), 우태영 역, 『500년 무역 대국 부의 도시 베네치아』, 서울: 다룬

오늘날에도 베네치아는 '지중해 교역을 주도했던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기리며' 매년 예수 승천일에 스폰살리오(sponsalio)라 불리는 바다와의 결혼식을 거행한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이 바다와의 결혼식이라는 행사는 베네치아가 아드리아 해 그리고 그 너머의 지중해를 장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이 상징적인 행사에서 도제는 의전 선박 부친토로(bucintoro)에 승선해 바다로 나가 아드리아 해에 반지를 던지며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지배의 증표로 너 바다와 결혼할 것이다."라고 외친다. 이렇듯 바다에 대한 지배는 베네치아 신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³⁾

후대 다수의 역사가들은 중세 후반 베네치아 공화국이 달성한 '영광스런 업적'을 근거로 베네치아를 "중세 해상 제국"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⁴⁾ 프레데릭 레인(Frederic C. Lane)은 자신의 저서 『베네치아: 해상 공화국』에서 베네치아가 지중해에서 획득한 바다 영토를 해상 기지 제국(empire of naval bases)으로 규정했다.⁵⁾ 토마스 매든(Thomas Madden)은

세상, pp. 15-17.

- 3) E. Muir (1981), *Civic ritual in Renaissance Ven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22; Monique O'connell (2009), *Men of empire. Power and negotiation in Venice's maritime state*,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p. 17; James Grubb (1986), "When myths lose power: four decades of Venetian historiography", *Journal of Modern History* 58, pp. 72-73.
- 4) David Chamber (1970), *The Imperial age of Venice, 1380-1530*,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Frederic C. Lane (1973), *Venice. A maritime republic*,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J. Morris (1980), *The Venetian empire: a sea voyage*, Harmondsworth; A. Zorzi (1980), *Una città, una repubblica, un impero, Venezia: 697-1797*, Milano: Mondadori; G. Wills (2001), *Venice, lion city, the religion of empire*, London; New York: Simon & Schuster; Thomas F. Madden (2012), *Venice. A new history*, London: Viking; Benjamin Arbel (2013), "Venice's Maritime Empire in the Early Modern Period", *A Companion to Venetian History, 1400-1797*, (ed. by Eric R. Dursteler), Leiden: Brill, pp. 125-254; Monique O'connell, (2009).
- 5) Frederic C. Lane (1973), p. 42.

4차 십자군을 계기로 베네치아는 상업 공화국에서 사실상의 제국으로 부상했으며, 이후 4세기 동안 제국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했다고 주장한다.⁶⁾ 오코넬은 10만도 채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베네치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해체되기 쉬운 해상 제국(fragmented and fragile empire)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다.⁷⁾

하지만 베네치아를 제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문제이다.⁸⁾ 다수의 역사가들이 베네치아를 중세 해상 제국이라 칭하지만 베네치아의 실제 정치체제는 공화국이었다. 베네치아는 비잔티움으로부터 사실상의 독립을 얻은 이후부터 나폴레옹에 의해 정복당할 때까지 줄곧 공화국이었다. 비록 베네치아를 이끄는 수장의 공식 직함은 이탈리아어로 도제였지만(도제라는 직함은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당시 황제가 수여한 달마티아 공작 *dux Dalmatiae*에서 유래했다), 도제가 왕이나 공작처럼 모든 국가 운영을 독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제는 세습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원로원, 대위원회, 40인 위원회, 10인 위원회와 법원이 입법, 행정과 사법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세 후반 인구 10만의 작은 섬나라 베네치아 공화국이 많은 역사가들의 주장처럼 제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릴만한 실질적인 힘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중세 이탈리아 상인이 이룬 성과는 신화와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어느 역사가의 신랄한 비판처럼⁹⁾ “해상 제국 베네치아”라는 개념도 신화와 과장일 뿐일까? 본 논문은 “해상 제국 베네치

6) Thomas F. Madden (2012), pp. 114-150.

7) Monique O'connell (2009).

8) M. Fusaro (2015), *Political economies of empire in the early modern Mediterranean. The decline of Venice and the rise of England 1450-17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

9) J. M. 홉슨(2005), 정경옥 역,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예코리브르, pp. 159-179.

아"가 단순히 신화일 뿐인지 아니면 이에 걸맞은 역사적 경험을 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복과 영토 팽창, 식민지의 존재와 식민 통치 등과 같은 제국을 규정하는 외형적인 요소들이 베네치아의 역사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¹⁰⁾ 그 다음 기존의 연구들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베네치아인들의 제국 의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즉 베네치아인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운영하겠다는 생각과 의지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외형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인 의식 또한 제국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2. 4차 십자군과 바다 영토(stato da mar)

4차 십자군을 계기로 베네치아가 해상 제국으로 부상했다는 토마스 매든의 해석은 정복한 영토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타당해 보인다.¹¹⁾ 실제로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과 함께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하고 제국의 8분의 3이라는 방대한 영토를 획득했기 때문이다.¹²⁾ 베네치아가 획득한 영토는 발칸 반도의 서쪽 부분, 예게 해의 주요 섬들, 아드리아노플에서 갈리폴리 사이의 좁은 영토였다. 이들 지역은 주로 베네치아 상선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베네치아가 4차 십자군과 영토 협상에서 주로 경제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베네치아는 논공행상 과정에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 베

10) 일반적으로 제국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광활한 영토, 다양한 언어 및 종교, 문화적 heterogeneity 등이 거론된다.

11) 오코넬은 베네치아 제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시작된 것은 도제 피에트로 2세 오르세올로가 아드리아 해로 진출한 시기부터였다고 말한다. Monique O'Connell (2009), p. 18.

12) Thomas F. Madden (2003), *Enrico Dandolo and the rise of Veni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196.

네치아 선단을 이끌고 십자군에 직접 참여했던 도제 엔리코 단돌로(Enrico Dandolo)가 영토 분할 협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신생 라틴 제국의 황제는 12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이 선거인단에는 여섯 명의 베네치아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베네치아 도제 단돌로는 4차 십자군 병력을 이끌었던 몬페라토 후작 보니파치오와 프랑스 출신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던 플랑드르 백작 보두앵과 함께 유력한 황제 후보 중의 한 명이었다. 만약 단돌로가 황제로 선출되었다면 베네치아 공화국은 라틴 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었다. 베네치아 출신이 아닌 여섯 명의 선거인단이 보니파치오(Bonifacio)와 보두앵(Baudouin)을 두고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에 여섯 명의 베네치아 선거인단은 단돌로를 황제로 추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¹³⁾ 하지만 단돌로와 베네치아인들은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선택했다.

다수의 역사가들은 4차 십자군을 계기로 베네치아 해상 제국이 탄생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베네치아인들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제국을 세우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¹⁴⁾ 베네치아가 비잔티움 제국의 8분의 3이라는 엄청난 영토를 얻은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의 8분의 3을 획득한 후 베네치아의 태도는 달라졌다. 실제로 13세기 이후 베네치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베네치아가 크레타 섬을 확보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은 제국의 속성인 해외 팽창과 식민지

13) Thomas F. Madden (2012), p. 147.

14) 일반적으로 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 해상 제국이 건설되었다고 보지만 이러한 일반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루시 게르트웨겐(Ruthy Gertwagen)에 따르면 베네치아는 13세기 해상 제국을 건설할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고, 14세기 후반에 가서야 해상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R. Gertwagen (2014), "Venice's policy towards the Ionian and Aegean islands, c. 1204-1423",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26, pp. 529-548.

건설에 다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우연하게 얻은 영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베네치아가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다. 새로 획득한 영토를 유지하는데 전략적 요충지였던 크레타 섬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베네치아 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여 크레타 섬을 몬페라토 후작 보니파치오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했다.¹⁵⁾ 하지만 베네치아가 크레타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우선 제노바 출신의 엔리코 페스카토레와 싸워야 했고 이후에는 독립을 원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했다. 식민 초기 베네치아는 그리스 출신의 토착 귀족들을 베네치아 이민자들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교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렸고 베네치아 법을 강요했다. 크레타 섬으로 이주한 베네치아인들은 군사적 봉사에 대한 대가로 몰수한 토지를 봉토로 받았다. 이를 통해서 베네치아 정부는 토착 귀족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할 지배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다.¹⁶⁾ 하지만 그리스 출신의 토착 귀족들은 끈질기게 저항했고 베네치아는 이들의 토지와 특권을 인정해주고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최종적으로 베네치아는 크레타 섬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오스만에게 빼앗기는 17세기 후반까지 약 5백 년 동안 크레타 섬을 지배했다.

두 번째 시험 무대는 또 다른 해상 세력이었던 제노바와의 경쟁이었다.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을 통해 확보한 해외 영토를 유지하고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노바와 여러 차례 해전을 치러야 했다. 양측은 125년 동안 4차례의 해전에서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았지만 어느 쪽도 4차 해전이 끝난 1381년 경쟁자를 바다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¹⁷⁾

15) 이전에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 4세는 크레타 섬을 몬테라토의 보니파치오에게 하사했다. Thomas F. Madden (2003), p. 198.

16) 1206년 몰타 백작 엔리코 페스카토레는 크레타 섬을 공격해 이를 장악했다. Monique O'connell (2009), p. 19; Thomas F. Madden (2003), p. 198.

17) 남중국(2007), 「13-14세기 지중해 해전: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36집, pp. 27-28.

그렇지만 1381년 키오지아 전투에서 승리한 베네치아는 다시 한 번 팽창의 기회를 얻었다. 실제로 베네치아는 이 시기 에게 해와 아드리아 해의 여러 섬들과 항구 도시를 장악하면서 해외 영토를 두 배나 확장했다. 1386년 코르푸의 군주 카를로가 사망하자 베네치아 정부는 재빠르게 두 척의 갤리선을 코르푸로 파견해 코르푸 의회로 하여금 베네치아에 복속될 것을 요구했다.¹⁸⁾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14세기 후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을 상대해야 했다. 여러 조건에서 오스만 제국은 베네치아가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대였다. 하지만 베네치아에게 한 가지 유리한 상황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발칸 반도가 대부분 기독교 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4세기 후반 발칸 반도의 기독교 지역들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오스만 제국보다는 같은 기독교를 믿는 베네치아의 지배를 수용하는 편이 나올 수 있었다. 베네치아 정부는 이러한 정황을 잘 이용했다. 오스만 군대는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 군대를 격파했고 1391년 두라초를 공격했다. 두라초의 군주 카를로 토피아는 병자였고 도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 베네치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했었다. 베네치아는 두라초 군주 카를로에게 오스만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함대를 파견하고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기로 사전에 협약을 맺었다. 또한 베네치아 정부는 두라초의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고 지배층 각자에게 5백 두카토의 연금을 주겠다고 설득했다. 카를로가 사망하자 베네치아는 두라초 시민에 대한 지배권을 선포했다. 실제로 카를로 사망 이전에 두라초는 이미 베네치아인들의 수중에 있었다.¹⁹⁾

오스만과의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베네치아는 다수의 식민지를 잃었다.

18) Donald MacGillivray Nicol (1988), *Byzantium and Venice: a study in diplomatic and cultur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22-325.

19) Monique O'connell (2009), p. 26.

베네치아는 1463년에서 1479년까지 계속된 오스만과의 전쟁(1463-1479)에서 에우보이아(이탈리아어로는 네그로폰테(Negroponte), 아르고스(Argos), 스키타리(Scutari)를 빼앗겼고 1479년 강화 조약에서 오스만 제국에서 교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매년 만 두카토의 공물을 오스만 제국에게 받치기로 약속했다. 오스만 제국과의 3차 전쟁(1499-1503)에서는 코로니(Koroni), 메토니(Methoni), 레판토와 두라초를 잃었고, 오스만과의 4차 전쟁(1537-1540)에서는 말바지아(Malvasia), 미코노스(Mikonos), 나플리오(Nafplio)를 빼앗겼다.²⁰⁾

다수의 역사가들은 오스만의 팽창으로 15세기 중반 이후 베네치아의 해상 영토는 몰락했다고 말한다. 오코넬은 1423년 베네치아가 테살로니키를 점령한 사건이 베네치아 해외 팽창의 영광스런 시절의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1423년 테살로니키는 오스만 군대에 포위되자 베네치아에게 자발적인 복속을 요청했고 논의 끝에 베네치아 정부는 이를 수락했지만 7년 후 최종적으로 테살로니키는 오스만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²¹⁾ 프랑스 역사가 베르나르 두메르크(Bernard Doumerc)는 15세기 말 이후면 해상 제국 베네치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²²⁾ 반면 벤자민 아르벨(Benjamin Arbel)은 15세기는 결코 해상 제국 베네치아가 몰락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의 면적과 인구라는 기준에서 보면 베네치아는 16세기 초 가장 방대한 해상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인구는 16세기 후반에 가장 많았다.²³⁾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토와 인구의 크기가 아니다. “해상 제국 베네치

20) Monique O'connell (2009), pp. 35-37.

21) Monique O'connell (2009), p. 33.

22) Bernard Doumerc (2002), “Les Vénitiens confrontés au retour des rapatriés de l'empire colonial d'outre-mer (fin XVe – début XVIe siècles)”, *Migrations et diasporas méditerranéennes (Xe – XVIe siècles)* (ed. by Michel Balard), Paris: Publication de la Sorbonne, pp. 375-398.

23) Benjamin Arbel (2013), pp. 142-143.

아"라는 표현은 동지중해에서 베네치아가 가장 강력한 해상 세력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15세기 말 이후 동지중해 제일의 해상 강국은 더 이상 베네치아가 아니라 오스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5세기 이후 동지중해에서 베네치아는 오스만으로부터 식민지를 방어하고 유지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1499년 8월 베네치아 함대와 오스만 제국 함대의 해전은 베네치아의 추락한 위상을 잘 보여준다. 전쟁 중에 오스만 제국의 파샤는 베네치아 대사 알비제 마네티(Alvise Manenti)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는 당시들이 바다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바다는 당신들보다 바다에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L'ha sposato el mar fin adesso; per l'avenir tocherà a noi, che habbiamo in mar più di voi)라고 훈계조의 충고를 했다. 같은 해 베네치아 연대기 작가 지롤라모 프리올리(Girolamo Priuli)는 "베네치아인들은 노예들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풍전등화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들려준다.²⁴⁾

최종적으로 베네치아가 14세기 말 이후 동지중해 제해권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기 갤리 선단의 운행마저도 1530년대 들어 중단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베네치아 상인과 상품을 실어 날랐던 정기 갤리 선단은 점점 더 해외 식민지를 방어하는데 차출되었고 결국에는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²⁵⁾ 안전한 수송뿐만 아니라 동지중해에 대한 제해권을 제공했던 갤리 선단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베네치아가 17세기 중엽까지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동지중해에 흩어져 있는 해외 식민지를 지켜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어쨌든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 이후 동지중해에 건설한 바다 영토

24) D. Malipiero (1843-1844), "Annali Veneti dall'anno 1457 al 1500", *Archivio Storico Italiano* 7, pp. 191-195; A. Tenenti (1973), "The sense of space and time in the Venetian world of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Renaissance Venice* (ed. by J. R. Hale), London: Faber and Faber, pp. 25-26.

25) B. Doumerc (1996), "Il dominio del mar", *Storia di Venezia. Il Rinascimento. Politica e cultura* (ed. by A. Tenenti and U. Tucci), Roma; Enciclopedia Italiana, pp. 164-178.

(*stato da mar*)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렇다면 왜 베네치아는 해상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를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했을까? 일부 역사가들은 베네치아가 동지중해와 아드리아 해에서 스타토 다 마르(*stato da mar*)라 불리는 바다 영토를 건설하게 된 것은 사전에 잘 준비된 계획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라 상황의 산물이었다고 말한다. 로베르토 체시(Roberto Cessi)는 베네치아가 의도적으로 달마티아 정복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달마티아로 진출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중립과 평화라는 고상한 이상과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한다.²⁶⁾ 프랑스 역사가 프레디 티리에(Freddy Thiriet)는 베네치아가 원래 크레타를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없었으나 그리스 출신의 토착민들의 반란과 크레타를 노리는 제노바와의 경쟁이라는 상황에 떠밀려 크레타에 대한 직접 지배 체제를 수립했다고 말한다.²⁷⁾ 매든은 베네치아 내부에서 4차 십자군 이후 해상 제국으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도제였던 피에트로 지아니(Pietro Ziani 1205-1229)는 ‘로마 제국의 8분의 3을 다스리는 지배자’라는 제국의 칭호를 거부했다. 매든은 당시 베네치아인들이 제국을 유지하려면 많은 인력과 함대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평화로운 무역이 방해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해상 제국으로의 길에 반대했다고 분석한다.²⁸⁾ 그러나 오코넬은 베네치아 제국이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인정 많은 제국도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그는 베네치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토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²⁹⁾

26) R. Cessi (1944), *Storia della repubblica di Venezia*, Milano; Messina: Principato, pp. 355-356.

27) F. Thiriet (1959), *La Romanie vénitienne au Moyen Age*, Paris: Bibliothèque de l'École Française d'Athènes et de Rome, pp. 105-106.

28) T. Madden (2003), p. 198.

29) Monique O'connell (2009), p. 19.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네치아가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교역이었다. 역사 속의 많은 제국들처럼 제국으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베네치아 정부는 자국 상선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해상 교통로 상에 위치한 섬과 항구들을 우선적으로 장악하려고 노력했다. 군사적으로 식민지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 고려 대상이었다. 오스만의 팽창으로 발칸 반도의 소규모 국가들이 베네치아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하겠다고 청했지만 베네치아는 모든 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5세기 초 아드리아 해 동부의 도시 카타로(Cattaro)가 여러 차례 복속을 청했지만 베네치아는 이를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는 좁고 깊은 만 안쪽에 위치한 이 도시를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³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산업 원료 또한 식민지 건설에 중요한 동기였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이 산업 생활에 필요한 원료와 완제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를 건설한 것처럼 중세 후반 베네치아도 소금³¹⁾, 곡물, 면화 등의 농산물과 산업 원료를 얻기 위해 해외 영토를 침략했다. 1423년 테살로니키의 자발적 복속을 흔쾌히 수락한 이유는 테살로니키 배후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³²⁾

식민지는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산업 원료를 베네치아에 제공했다. 아드리아 해 동쪽에 위치한 식민지에서는 포도주, 소금, 가죽, 목재, 건설용 석재를, 크레타 섬에서는 곡물, 면화, 포도주³³⁾, 밀랍, 올리브 유, 꿀과 치즈를, 에우보이아 섬에서는 밀과 포도주를,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식민

30) Benjamin Arbel (2013), pp. 137-138.

31) 베네치아가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J. C. Hocquet (1978-1979), *Le sel et la fortune de Venise*, Lille: Université de Lille III.

32) Benjamin Arbel (2013), p. 139.

33) U. Tucci (1994), "Le commerce vénitien du vin de Crète", *Maritime food transport* (ed. by K. Friedland), Köln: Böhlau Verlag, pp. 199-211.

지들에서는 과일, 건포도, 올리브 유, 소금, 면화를, 키프로스 섬에서는 면화와 설탕을 베네치아로 들여왔다. 베네치아는 식민지의 농산물과 산업 원료 생산을 철저히 통제 관리했다. 실례로 정부는 크레타 섬이 매년 베네치아로 보낼 곡물의 양과 가격을 정했다.³⁴⁾ 또한 베네치아 정부는 15세기 말 키프로스 섬을 장악한 후에,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처럼 키프로스 섬을 철저히 수탈했다. 특히 면화 재배를 특화시켜 생산량을 3배로 증가시켰다.³⁵⁾ 식민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산업 원료는 베네치아의 내부에서 소비되는데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유통되었다. 크레타 섬의 포도주는 베네치아 대형 범선에 실려 대서양으로 팔려 나가서 유럽 제일의 포도주라는 명성을 얻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베네치아의 바다 영토(Stato da mar)는 자국 상선이 운항하는 아드리아 해와 에게 해에 면한 항구들과 섬들을 연결해 놓은 일종의 해외 거점 상업 네트워크였다. 그런 점에서 베네치아의 바다 영토는 16세기 인도양에서 포르투갈이 세운 에스타도 다 인디아(Estado da India)와 여러 면에서 유사했다. 베네치아의 바다 영토는 지나치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 보였다. 하지만 작은 섬 나라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운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선단으로 지중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항구와 섬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식민지 건설의 방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 영토를 정복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34) E. Crouzet-Pavan (2004), *Venise triomphante: les horizons d'un mythe*, Paris: Albin Michel, pp. 139-140.

35) 베네치아 점령 이전 7천 칸타르였던 면화 생산이 20만 칸타르로 증가했다. 칸타르는 중세 지중해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도량형이었다. 특히 면화의 무게를 계량하는 기본 척도이기도 했다. 칸타르는 시장과 시대별로 무게가 달랐는데 중세 말 키프로스 섬에서 사용된 칸타르는 대략 200킬로 정도였다. Jong Kuk NAM (2007), *Le commerce du coton en Méditerranée à la fin du Moyen Age*, Leiden; Boston: Brill, p. 25, pp. 175-176.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방어하고 유지하며 통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본국 베네치아와 식민지 간의 갈등과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정교를 신봉하는 그리스 식민지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정복자 베네치아인들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았다. 오스만의 지배보다는 같은 기독교 형제인 베네치아의 지배를 수용했던 그리스 지역들조차도 기독교와 상당한 자치를 요구했다. 게다가 크레타처럼 베네치아의 식민 지배를 원하지 않았던 지역들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베네치아 지배에 저항했다.³⁶⁾ 이러한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가 몇 세기 동안 바다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 신화에 가까운 일이었다.³⁷⁾

3. 이탈리아 본토(terra ferma)로의 진출과 육상 영토(stato da terra)

해상 제국이라는 신화에는 베네치아가 점령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식민 영토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베네치아 신화의 핵심은 바다 영토(stato da mar)였고, 다수의 역사가들은 지중해를 누비는 베네치아 함대와 상인들 속에서 베네치아의 위대함을 찾았다.³⁸⁾ 그런 연유로 최근까지도 베네치아에게 테라 페르마(terra ferma)라 불리는 이탈리아 본토는 지중해와 비교해 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게다가 다수의 역사가들은 스타토 다 테라(stato da terra)라 불리는 육상 영토와 바다 영토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르면 베네치아가 북부 이탈리아로 진

36) Benjamin Arbel (2013), pp. 127-128.

37) 베네치아는 1669년까지 크레타 섬을 지배했고, 1797년 나폴레옹에 의해 정복당할 때까지 아드리아 해에 식민지를 유지했다. Monique O'connell (2009), p. 38.

38) J. Grubb (1986), pp. 72-73.

출하기 시작한 것은 동지중해에서 오스만에게 많은 식민지를 빼앗기면서부터였다.³⁹⁾

하지만 베네치아가 제국으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다 영토와 육상 영토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바다 영토는 육상 영토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테라 페르마는 베네치아 상선들이 지중해로부터 들여온 상품이 북서유럽으로 수출되고 북서유럽의 모직물이 베네치아로 유입되는 상업로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베네치아가 북부 이탈리아 본토로 정복전쟁을 감행한 이유는 바다 영토를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베네치아 상품의 자유로운 수송만 보장된다면 막대한 전비가 소요되는 정복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1300년 이후 북 중부 이탈리아에서 일부 도시국가나 공국들이 주변 지역을 정복해 좀 더 규모 있는 영토 국가로 발전하면서 베네치아는 안전하고 확실한 상품 수송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밀라노 공국의 팽창이 두드러졌다. 이전까지 베네치아는 작은 도시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영토 국가가 생겨나면서 베네치아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⁴⁰⁾

베네치아가 북부 이탈리아를 정복하게 된 것은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공화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자 한 공격적인 대응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 본토로의 진출은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이었다. 베네치아는 1338년 라구나 북쪽의 상업로를 확보하기 위해 트레비소를 합병하면서 테라 페르마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⁴¹⁾ 15세기

39) S. Marin (2003), "The Venetian community between civitas and imperium. A project of the capital's transfer from Venice to Constantinople, according to the chronicle of Daniele Barbaro", *European Review of History* 10, p. 83; A. Tenenti (1973).

40) Thomas F. Madden (2012), p. 232.

41) Michael Knapp (2013), "The Terraferma state", *A Companion to Venetian History, 1400-1797* (ed. by Eric R. Dursteler), Leiden: Brill, p. 85.

초반 파도바 군주인 프란체스코 카라라(Francesco Carrara)가 트레비소를 장악해 베네치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교역로를 차단하려 하자 베네치아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베네치아는 일차적으로 외교적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밀라노 공작 잔 갈레아초 비스콘티(Gian Galeazzo Visconti)와 동맹을 맺고 베네치아 국익에 방해가 되는 카라라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베네치아는 트레비소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확립했다. 몇 년 후 동맹 세력인 비스콘티가 사망하자 베네치아는 파도바, 비첸차, 베로나를 점령했다(1404-1406).⁴²⁾

여전히 베네치아가 북부 이탈리아로 진출하게 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상황에 따른 결과였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이 있다.⁴³⁾ 그러나 1400년경을 전후해 북동부 이탈리아와 아드리아 해 북쪽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길고 끈질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토로의 진출이 우연의 결과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베네치아는 국익에 해가 될만한 사람을 암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베네치아의 제국주의적 폭력성을 잘 드러낸다. 실제로 베네치아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암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북부 이탈리아와 아드리아 해 북쪽으로 팽창을 시도하는 베네치아는 지기스문트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헝가리 왕(1387-1437)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1433-1437)였던 지기스문트는 당시 베네치아가 상대해야 했던 가장 강력한 적이었다.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듯이 지기스문트는 베네치아의 경쟁자이자 적이었던 제노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달마티아 해안에서 베네치아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지기스문트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 벌어진 키오지아 전투에서 제노바 편을 들었다.⁴⁴⁾ 1410년대 베네치아가 프리울리와 이스트리아 지방으

42) Thomas F. Madden (2012), p. 231.

43) Michael Knapton (2013), p. 86.

로 팽창을 시도하자 지기스문트는 이미 베네치아 영토였던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을 선동하면서 베네치아의 동진을 저지하려고 했다. 결국 양자는 1412년 전쟁에 들어갔고 이 전쟁은 1420년에 가서야 종결되었다.⁴⁵⁾ 황제는 독일에서 베네치아로 가는 교역로를 폐쇄함으로써 베네치아의 전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당시 베네치아 귀족 상인 돌핀은 자신의 연대기에서 황제의 교역로 폐쇄 전략이 베네치아 경제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적고 있다.⁴⁶⁾ 전쟁이 시작된 다음 해 베네치아는 승리했고, 1413년 4월 17일 5년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기스문트는 여전히 잠재적 위협 요인이었다. 그런 이유로 베네치아 내에서 지기스문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급기야 1415년 베네치아 정부는 지기스문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러나 당시는 휴전 상태였고 만약 암살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인해 암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⁴⁷⁾ 휴전 협정이 끝나는 1418년 양자 사이의 적대감은 다시 표출되었다. 베네치아는 프리울리 지방을 점령했고 이에 맞서 지기스문트는 경제적으로 베네치아를 공격했다. 지기스문트는 자신의 영토 내의 모든 도시들로 하여금 베네치아와의 상업 관계를 끊을 것을 명했고 베네치아를 대신해 동방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육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다.⁴⁸⁾ 그것은 흑해를

44) A. Ducellier (1971), "Deux projets vénitiens d'assassinat du roi Zsigmond(1415~1419)", *Etudes finno-ongriennes* 4, p. 61.

45) A. Ducellier (1971), p. 62.

46) W. von Strömer (1986), "Die Kontinental-perre Kaiser Sigismunds gegen Venedig 1412~1413, 1418~1433 und die Verlagerung der transkontinentalen Transportwege", *Transporti e sviluppo economico, secoli XIII~XVII* (ed. by Anna Vannini Marx), Firenze: Le Monnier, p. 61.

47) A. Ducellier (1971), pp. 61-66.

48) S. Papacostea (1971), "Kilia et la politique orientale de Sigismond de Luxembourg", *Revue Roumaine d'histoire* 15, p. 422; A. Ducellier (1971), p. 64.

출발해 도나우 강을 따라오는 육로였다.⁴⁹⁾ 지기스문트는 이를 위해서 베네치아의 최대의 숙적이자 당시 흑해에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던 제노바와 손을 잡았다. 다시 베네치아 내에서는 지기스문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베네치아 정부는 이 계획에 천 두카토의 예산을 책정했다. 크레타에서 태어난 베네치아인 미켈레토 무다초(Micheletto Mudazzo)는 자신이 지기스문트를 제거하겠다고 베네치아로 왔다. 하지만 2차 암살 계획도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1419년 오스만의 공격을 받은 베네치아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⁵⁰⁾

베네치아가 이탈리아 본토로의 팽창을 시도한 것은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공화국의 상업적 이해를 지키기 위한 식민지 정복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부 이탈리아로의 팽창을 모든 정치 세력이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바다 영토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육상 영토를 건설해 거대한 영토 제국을 세우느냐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다. 평화를 기반으로 한 상업 활동이 베네치아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북부 이탈리아로의 영토 정복에 반대했다. 이러한 갈등은 1420년대 정권 교체로 인해 표면화되었다. 공화정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했던 도제 토마소 모체니고는 사망하기 1년 전인 1423년 자신의 후계자로 프란체스코 포스카리(Francesco Foscari)만을 피해달라고 원로원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모체니고는 프란체스코를 도제로 선출하면 베네치아는 앞으로 오랫동안 전쟁이라는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모체니고도 재임 시절 평화적인 대외 정책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1414년 도제로 선출된 모체니고는 북 아드리아 연안을 두고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와 전쟁을 했었고 1419-1420년에는 우디네, 치비달레, 펠트레 등지를 정복했다.

49) S. P. Pach (1973), "La route du poivre vers la Hongrie médiévale", *Mélanges en l'honneur de Fernand Braudel. Histoire économique du monde méditerranéen 1450-1650*, Toulouse: Privat, pp. 449-458.

50) A. Ducellier (1971), pp. 65-66.

모체니고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은 포스카리를 후임 도제로 선출했다. 베네치아를 이끄는 지배 세력들이 포스카리를 선택한 것은 그의 팽창주의 노선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 베네치아의 지배 귀족들은 북부 이탈리아로의 팽창은 베네치아 상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포스카리 지배 하의 베네치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북부 이탈리아로의 영토 확장을 시도했다. 1426년 브레시아를, 1428년 베르가모를, 1440년에는 트렌티노 지방을, 1441년에는 라벤나를, 1449년에 크레마(Crema)를 정복했다.

포스카리 이후에도 베네치아는 북부 이탈리아로의 팽창 정책을 이어갔다. 1482년에는 이탈리아 내의 경쟁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비고(Rovigo)를 합병했다. 베네치아의 침략 전쟁은 결국에는 1494년에서 1530년까지 지속된 이탈리아 반도 전쟁을 야기했다. 특히 베네치아 입장에서 1509년 아냐델로 전투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베네치아를 상대하기 위해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교황, 에스파냐와 같은 유럽 최강대국들이 캄브레 동맹(1508)을 결성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짐작케 해준다. 아냐델로 전투에서 캄브레 동맹군에게 패한 5달 후인 1509년 9월 베네치아 도제 레오나르도 로레단(Leonardo Loredan)은 원로원에서 항전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도제는 동맹군을 물리치고 베네치아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베네치아는 프랑스 군에 크게 패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는 롬바르디아를 차지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는 베네토 지방을 장악했으며,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로마냐(Romagna) 지방의 교황 도시들을 수복했고, 아라곤의 페르디난트는 폴리아 지방의 항구 도시들을 다시 찾았다. 반면 베네치아는 15세기 초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거의 모든 테라페르마 영토를 잃어버렸다.⁵¹⁾

51) R. Finlay (1999), "The myth of Venice in Guicciardini's History of Italy: Senate orations on princes and the republic", *Medieval and Renaissance Venice* (ed. by E. E. Kittel and

16세기 전반 북부 이탈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세력들은 수시로 동맹 관계를 바꿨다. 1516년 베네치아는 프랑스와 연합해 아나델로 전쟁의 패배로 잃어버렸던 테라페르마 영토를 되찾았고 이 육상 영토를 1797년까지 유지했다. 이 육상 영토(stato da terra)는 이탈리아 반도의 5분의 1에 해당했고(3만 평방 킬로), 인구는 1548년 140만에서 1766년 200만으로 증가했다. 아나델로 전쟁의 패배로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긴 했지만 베네치아는 더 이상 15세기 전성기의 힘과 명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서 제일의 강자는 프랑스의 발루아 왕실과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이었기 때문이다.⁵²⁾ 그런 점에서 아나델로 전투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베네치아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바다 영토가 전적으로 베네치아 상선과 상인을 위한 상업 거점 네트워크였다면 육상 영토는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해 건설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 베네치아 지배세력들은 육상 영토를 정복함으로써 영토 국가로서의 베네치아의 자존심과 명성을 드높이고자 했다. 15세기 말 연대기 작가 지롤라모 프리올리의 지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선조들은 테라 페르마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베네치아의 이익과 이윤을 위해 사업 여행과 항해에 헌신하면서 매년 많은 돈을 벌었지만 세계 전역에 명성을 얻지 못하고 어부로 간주되었었다. 하지만 육상 영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 조상들은 그 덕분에 위대한 명성과 이름을 얻었고 모든 군주들로부터 명예를 얻었고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은 베네치아 사람들을 신흥부자로 경멸했고 베네치아 귀족들은 이러한 멸시를 극복하기 위해 북부 이탈리아 땅을 식민지로 만들었다.⁵³⁾

T. F. Madden), Urban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 294-297.

52) Monique O'connell (2009), p. 158.

53) 롬바르디아 지방 사람들, 루도비코 스포르차와 파도바 사람들은 베네치아 사람들을 어부라고 비아냥거렸다. G. Priuli (1912-1940), *I diarii*, Bologna: N. Zanichelli, vol. 1, p. 116; A. Tenenti (1973), pp. 21-22.

제국의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해진 베네치아 지배계급들은 15세기에 이르면 서유럽 대륙의 봉건 귀족적 삶을 희망했다.⁵⁴⁾ 이러한 전통적인 서유럽 봉건 귀족들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본토의 단단한 땅과 장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농촌 지역이었다.⁵⁵⁾ 하지만 베네치아가 육상 영토를 건설한 일차적인 이유는 제국으로서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 때문이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제국 건설에 대한 베네치아인들의 인식

베네치아를 사실상의 제국으로 간주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많은 영토를 정복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고 운영하겠다는 인식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많은 역사가들이 4차 십자군을 계기로 해상 제국 베네치아가 탄생했다고 말하지만 제국 건설 의지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4차 십자군은 의식적인 제국이 건설된 시점은 아니었다. 우선 4차 십자군이 비잔티움 제국을 침략하고 그 과정에서 십자군 수송을 맡은 베네치아가 정복한 제국의 8분의 3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약간의 우연적인 결과였기 때문이다.⁵⁶⁾ 하지만 베네치아가 4차 십자군과 함께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54) A. Tenenti (1973), p. 22.

55) Michael Knapton (2013), p. 92.

56) 체시(Cessi)는 베네치아가 의도적으로 달마티아 정복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달마치아로 진출한 것이며 특히 고요함, 중립과 평화라는 고상한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리에는 베네치아가 원래 크레타를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없었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제노바와의 경쟁으로 어쩔 수 없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Monique O'connell (2009), p. 17.

제국의 8분의 3을 획득한 사건은 베네치아인들로 하여금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게 했다. 다수의 베네치아 연대기들은 4차 십자군 당시 베네치아 수장이었던 엔리코 단돌로가 황제가 될 마음이 있었다고 전한다. 12명의 황제 추대 위원 중에 6명이 베네치아인들이었기 때문에 단돌로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섯 명 중 판탈레오네 바르보(Pantaleone Barbo)는 다른 베네치아 추대 위원들에게 단돌로를 황제로 선출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플랑드르 백작 보두앵을 황제로 추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른 연대기는 도제 단돌로가 제국의 위엄이 베네치아 공화국 수장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황제 후보를 포기했다고 전한다.⁵⁷⁾

어쨌든 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 수장인 도제는 로마 제국의 8분의 3의 지배자(Dominator quartae partis et dimidia totius imperii Romaniae)라는 제국 칭호를 획득했다. 17세기 초 올모(Fortunato Olmo)는 자신의 연대기에서 “그래서 베네치아 도제는 황제이며,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로마니아(Romania)는 라틴어로 새로운 로마(Roma Nuova)를 뜻하기 때문에 베네치아의 도제가 로마 황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고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제국 수도를 옮긴 이후 이 도시를 새로운 로마라 불렀기 때문이다. …… 제국의 4분의 1이 라틴 제국의 황제에게 돌아갔다면 베네치아 도제에게는 4분의 1과 4분의 1의 반이 돌아갔기 때문에 베네치아의 도제는 라틴 제국의 황제 보두앵보다 더욱 황제인 것이다.”라면서 베네치아 수장을 황제로 치켜세웠다.⁵⁸⁾

다수의 연대기들은 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가 제국의 명예를 얻었다고 증언하지만 이러한 연대기들이 주로 중세 말과 근대 초에 작성된 기록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인들도 제국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돌로를

57) S. Marin (2003), pp. 84-85.

58) S. Marin (2003), p. 86.

계승해 도제로 선출된 피에트로 지아니(1205-1229)는 원로원과 다른 정부 조직들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즉 수도를 베네치아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자는 제안이었다. 16세기 초 베네치아 공식 기록관이었던 다니엘레 바르바로(Daniele Barbaro)는 이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바르바로에 따르면 도제 지아니는 그리스 지역에서 획득한 영토가 베네치아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며,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도 베네치아인들이 상당한 위상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콘스탄티노폴리스 주재 베네치아 포데스타(Podestà)는 라틴 황제와 맞먹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아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의 이전이 명예와 이익뿐만 아니라 베네치아의 끝없는 성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제의 연설이 끝난 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안젤로 팔리에르(Angelo Falier)라는 한 원로가 일어나 수도 이전의 단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 이전이 명예로운 일이지만 하지만 이익보다는 다른 세력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 결국에는 베네치아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1214년 8월 19일 사안은 대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졌으나 아쉽게도 찬성과 반대가 동수가 나와 지아니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18년 수도 이전에 관한 투표가 다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도 찬성 321표, 반대 323표로 수도 이전 안건은 부결되었다.⁵⁹⁾ 결국 당시 베네치아 집권 세력들은 제국이라는 명예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우선시했던 것이다.

수도를 이전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베네치아인들에게 제국의 명예와 정체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4세기 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전하고, 5세기 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서유럽에서 등장한 두 제국 즉 카롤루스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59) 어떤 연대기는 이 제안을 한 사람이 지아니가 아니라 이전 도제 단돌로였다고 증언한다. S. Marin (2003), p. 89.

때론 비잔티움 황제로부터 동등한 제국으로서의 인정을 얻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계승하겠다는 의지와 표현은 제국이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위상이 약해질수록 로마 제국을 계승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14세기 베네치아인들은 스스로가 로마를 계승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베네치아가 새로운 로마라는 사고는 베네치아인들의 자화자찬이나 허세만은 아니었다.⁶⁰⁾ 14세기 중엽 베네치아를 방문한 페트라르카는 자신의 친구이자 베네치아를 이끄는 도제 안드레아 단돌로(Andrea Dandolo)에게 도제라는 직책은 로마 황제의 모든 자질을 갖춘 위엄 있는 자리라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단돌로를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에 비교했다.⁶¹⁾ 물론 베네치아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⁶²⁾

테라페르마로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고 동지중해의 바다 영토를 지켜낸 도제 프란체스코 포스카리(1423-1457)는 베네치아를 새로운 로마로 선전했다.⁶³⁾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의 수중에 들어간 이후 베네치아가 새로운 로마라는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었다. 그리스 출신의 망명객이었던 추기경 베사리온(Bessarion)은 1469년 베네치아 도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네치아를 또 다른 콘스탄티노폴리

60) J. E. Law (1992), "The Venetian mainland state in the fif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2, p. 155.

61) D. S. Chambers (1970), *The imperial age of Venice 1380-1580*,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pp. 22-23; J. E. Law (1992), "The Venetian mainland state in the fif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2, p. 155.

62) J. E. Law (1992), "The Venetian mainland state in the fif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2, p. 155.

63) D. Romano (2007), *The likeness of Venice. A life of doge Francesco Foscari 1373-1457*,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 330.

스로 묘사했고, 이제 베네치아가 지중해의 기독교 세계를 이끄는 중심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당시 베네치아의 외교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교황 피우스 2세(1458-1464)조차도 “오늘날 베네치아인들은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가장 강력하며, 그들이 희망하는 것 이상의 제국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추기경과 교황의 지적은 베네치아가 제국으로 불리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5세기 후반 베네치아 공식 역사가였던 사벨리코(Sabellico 1453-1506)는 베네치아가 고대 로마보다 더 위대했다고 자랑했으며, 베네치아 도제 아고스티노 바르바리고(Agostino Barbarigo, 1486-1501)를 새로운 황제(new augustus)로 묘사했다.⁶⁴⁾

분명 15세기경 베네치아의 지배 세력들은 베네치아를 사실상의 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⁶⁵⁾ 이러한 사실은 베네치아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1423년 이후 베네치아는 이전의 코무네 즉 자치 공화국 대신 도미니움(dominium)으로 불리게 된다. 지배를 의미하는 라틴어 도미니움은 당시 제국을 의미하는 라틴어 임페리움(imperium)과 이탈리아어 임페리오(imperio)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⁶⁾ 고대부터 중세 말까지 서유럽에서 제국이라는 명칭과 개념은 모두 고대 로마에서 유래했다. 제국을 뜻하는 임페리움(imperium)은 원래 명령하다(imperare)에서 파생된 단어로 공화정 초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집정관이 행사하는 군 통제권을 의미했다. 이후 임페리움은 의미가 확대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명령권을, 이후에는 지배하는 지역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 변화 과정에서 임페리움은 팽창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임페리움은 왕국을 뜻하는 레그눔

64) D. S. Chambers (1970), pp. 24-26.

65) Patricia H. Labalme (1969), *Bernardo Giustiniani: a venetian of the Quattrocento*, Roma: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p. 119.

66) Michael Knapton (2013), p. 92.

(regnum)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임페리움 로마눔(imperium romanum)은 로마가 지배하는 영토 즉 로마 제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 변화의 결과 중세 서유럽에서 임페리움이라는 단어는 왕이 아니라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는 영토를 의미했다. 무엇보다도 중세 서유럽에서 제국의 일차적인 조건은 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서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이를 계승한 카롤루스의 제국과 오토 1세의 제국이 공식적인 제국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는 생각과 의지는 제국임을 판명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⁶⁷⁾

특히 15세기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인문주의자 베르나르도 주스티니아니(Bernardo Giustiniani)가 베네치아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도제 프란체스코 포스카리의 장례에서 한 추모사는 제국이 무엇인지, 베네치아가 제국에 걸맞은 위상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추모사에서 파리 대학에서 했던 강의를 인용하면서 베네치아와 프랑스의 힘 그리고 제국의 의미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고대 아테네를 제국으로 간주했고, 아테네 제국은 자유를 상실하면서 학문도 상실했고 그 결과 아테네 제국의 학문과 제국의 힘이 동시에 이탈리아로 옮겨갔다고 말한다. 이후 로마 황제가 황제의 영광을 잃어버리자 이번에는 카롤루스가 황제의 영광을 프랑스로 가져왔고 그와 동시에 인문학도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는 제국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 즉 인문학이라고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진정으로 이것은 인문학의 법칙이고, 위대한 제국에는 항상 인문학(Ea profecto fuit liberalium artium lex, ea consuetudo ut magna semper sequerentur imperia)이 있는 것과 같은 관습입니다.”⁶⁸⁾

67) 일반적으로 임페리움 로마눔(imperium romanum)은 800년 동로마 제국에서 프랑크 왕국으로, 962년에는 프랑크 왕국에서 독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된다. 외르크 피쉬 외 다수(2010), 황승환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3: 제국주의』, 서울: 푸른역사, pp. 14-19.

68) Patricia H. Labalme (1969), pp. 168-170.

파리 대학 강연에서 프랑스 왕국의 역사를 추켜세웠지만 결국 그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제국과 학문이 베네치아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네치아에 이러한 제국의 영광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 포스카리였다. 1457년 추모 연설을 맡은 주스티니아니는 포스카리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스카리는 도제가 되기 이전부터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는데 1404년 40인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파도바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베네치아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파도바뿐만 아니라 베로나와 비첸차까지 베네치아 제국에 편입시켰다.⁶⁹⁾ 베르나르도는 베르가모, 크레마와 라벤나 정복을 설명하면서 라벤나는 가장 오래되고 축복받은 도시이자 왕과 황제의 수도이며, 포스카리가 이들 도시를 정복한 것은 위대한 불멸의 업적이라고 찬양했다.⁷⁰⁾

계속된 추모사에서 베르나르도는 죽은 도제를 알렉산더 대왕과 카이사르와 같은 위대한 황제에 비유했으며, 포스카리 통치 하에서 베네치아는 해상 제국을 건설한 아테네의 업적, 육상 제국을 건설한 스파르타의 업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통합한 로마의 업적 모두를 달성해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국(vestrum imperium)으로 들어오는 거센 물길을 막아낸 사람이라면서 죽은 도제를 칭송했다.⁷¹⁾ 베르나르도는 포스카리를 명실상부한 베네치아 제국을 세운 건설자로 찬양했다. 또한 그는 베네치아 도제가 교황과 황제와 함께 세상에서 가

69) 베르나르도와 그의 가문은 북부 이탈리아와 동지중해로의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펼쳤던 도제 프란체스코 포스카리를 지지했다. <Verona primum, dehinc Patavium urbes quondam regiae non solum inter primas Italiae, verum etiam totius Europae civitates nobilissimae imperio vestro adjectae sunt>. B. Giustiniani (1789), "Oratio funebris habita in obitu Francisci Fuscari Ducis", *Orazione, elogi et vite scritte da letterati Veneti patrizi in lode di dogi, ed altri illustri soggetti* (ed. by G. A. Molin), Venezia, vol. 1, p. 25; Patricia H. Labalme (1969), p. 114.

70) B. Giustiniano (1789), pp. 53-54.

71) Patricia H. Labalme (1969), p. 177; Seth Parry (2008), *Fifty years of failed plans: Venice, humanism, and the Turks*, Dissertation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p. 339-342.

장 강력한 군주라고 자랑했다.⁷²⁾

베르나르도가 포스카리를 베네치아 제국 건설자로 찬양하며 그의 팽창 정책을 지지한 것은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외부에 있는 베네치아의 적들뿐만 아니라 포스카리의 팽창정책에 반대했던 내부 세력들도 베네치아가 테라페르마를 정복한 이유는 탐욕과 지배욕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베르나르도는 베네치아가 본토 문제에 개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산물이었고, 포스카리는 이탈리아의 자유(libertas Italiae)를 수호하라는 운명을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반박했다.⁷³⁾ 또한 그는 “우리 제국은 무력보다는 정치력을 통해 성장했다”(Ordine politiae plus quam armis auctum imperium nostrum est)라면서 베네치아 제국의 부드러운 지배를 은근히 강조했으며⁷⁴⁾, 더 나아가 베네치아가 지중해와 이탈리아 본토에서 식민지를 정복하고 일종의 제국을 건설한 이유는 침략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더 이상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까지 주장했다.⁷⁵⁾

또 다른 베네치아 출신의 인문주의자 프란체스코 바르바로(Francesco Barbaro)는 베네치아를 밀라노의 비스콘티 가문과 같은 압제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이탈리아 반도의 자유를 수호하는 보호자라고 선전했다.⁷⁶⁾ 1483년 육상 영토를 둘러보고 여행기를 남긴 베네치아 연대기 작가 마리노 사누도(Marino Sanudo)도 애국심이 가득한 논조로 베네치아가 테라페르마에서 이룩한 군사적 업적을 찬양하면서 베네치아 제국의 관대함과

72) Patricia H. Labalme (1969), p. 119; Seth Parry (2008), *Fifty years of failed plans: Venice, humanism, and the Turks*, PhD. Diss.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 354.

73) D. Romano (2007), p. 314.

74) Patricia H. Labalme (1969), pp. 168-170.

75) Patricia H. Labalme (1969), pp. 118-119, pp. 281-282.

76) James Grubb (1986), pp. 72-73.

관용을 자랑했다. 사누도의 찬사에 따르면 날개 달린 사자의 제국 베네치아가 본토의 식민 도시 로베레토(Rovereto)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 덕분에 이곳의 모든 주민들은 안전하게 잠을 잔다(*Securi dormite omnes; cuto-diet urbem*).⁷⁷⁾

이러한 정복 전쟁을 이탈리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미화했던 당시 베네치아의 지배 세력들처럼 오늘날에도 다수의 역사가들이 베네치아의 식민 지배가 호의적이고 자비로웠다고 주장한다.⁷⁸⁾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약탈하면서 이를 백인의 책무나 문명 전파의 위대한 사명으로 미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당시 베네치아의 적들은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탈리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었다.⁷⁹⁾ 실제로 베네치아가 해외 영토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건설한 것은 전적으로 자국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세 베네치아는 역사 속의 많은 제국들처럼 호의적이지도 자비롭지도 않았다. 자국의 상업적 이해를 위해 식민지를 건설하고 정복을 미화하는 등 여러 점에서 중세 베네치아 제국은 19세기 근대 제국주의를 빼닮았다.

5. 결론

이제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영토의 규모라는 외형

77) <Sum Leo quo nullus possedit latius orbe Imperium: paret terra fretumque mihi. Et justiciam facio: caveat sibi quisque malorum; Uliscor scelera qui secat ense meo.> Rawdon Brown (1847), *Itinerario di Marino Sanudo per la Terraferma Veneziana nell'anno 1483*, Padova: Tipografia del Seminario, p. 94; J. E. Law (1992), p. 154.

78) Monique O'connell (2009), p. 17; James Grubb (1986), pp. 72-73.

79) N. Rubinstein (1974), "Italian reactions to Terraferma expansion in the Fifteenth century", *Renaissance Venice* (ed. by J. R. Hale), London; Faber and Faber, pp. 197-217.

적 기준에서만 판단할 때 베네치아는 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식민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실제로 베네치아의 해외 영토와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를 모두 합치더라도 근대 초 지중해와 유럽을 대표하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나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비하면 초라해 보인다. 전성기의 로마 제국에 비하면 한없이 보잘 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세 베네치아는 이들 거대 제국들이 제국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는 지중해와 이탈리아 반도에 다수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베네치아도 지중해와 이탈리아 반도에 산재해 있는 식민지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종교, 인종, 언어와 문화에서 다양한 해외 영토와 본국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만 했다. 더 나아가 중세 후반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섬나라 베네치아가 비잔티움 제국, 신성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등 당시 제일 규모의 제국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베네치아가 제국의 위상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베네치아를 진정한 제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는 바다 영토(stato da mar)에 이어 육상 영토(stato da terra)를 확고하게 건설한 15세기 정도에 한해서였다.⁸⁰⁾ 왜냐하면 15세기 말 이후 베네치아는 더 이상 제국으로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영토 면에서 보자면 16세기 초에 더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15세기 말 이후 베네치아는 동지중해에서 오스만의 우위를, 서유럽에서는 성장하는 영

80) 베네치아를 제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다. 체임버스(D. S. Chambers)는 제국 시기를 1380년에서 1580년 사이로 잡는다. 맥닐은 1282년에서 1481년 사이를 베네치아가 강대국으로의 위상을 유지한 시기로 간주한다. 오코넬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베네치아 제국의 형성과 소멸 과정을 분석했다. D. S. Chambers (1970); W. H. McNeill (1974), *Venice: The hinge of Europe 1081-1797*,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46-89; Monique O'Connell (2009), pp. 17-38.

토 국가의 우위를 인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16세기 베네치아는 바다 영토와 육상 영토를 방어하는데 급급했다.

15세기 베네치아 제국은 기존의 유럽 제국들 즉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 이들 전통적인 유럽 제국들은 황제가 다스리고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정치군사제국이었던 반면 15세기 베네치아 제국은 1인 지배체제가 아니라 다수의 집권 세력들에 의해 운영된 공화국이었고, 해외 식민지를 건설한 이유도 영토 정복을 통한 제국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상업 제국이었다. 결국 15세기 베네치아 제국은 해외로 팽창해 식민지를 건설하고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측면에서 근대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근대 제국과 유사했고 그런 점에서 근대 제국의 중세적 기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81) 최갑수(2005), 『제국에서 근대국가로: 유럽사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조망』, 『세계정치』 제26집, pp. 136-137.

참고문헌

【자 료】

- Brown, Rawdon (1847), *Itinerario di Marino Sanudo per la Terraferma Veneziana nell'anno 1483*, Padova: Tipografia del Seminario.
- Giustiniani, B. (1789), "Oratio funebris habita in obitu Francisci Fuscari Ducis." *Orazione, elogi et vite scritte da letterati Veneti patrizi in lode di dogi, ed altri illustri soggetti* (ed. by G. A. Molin), Venezia: Pepoli.
- Malipiero, D. (1843), "Annali Veneti dall'anno 1457 al 1500." *Archivio Storico Italiano* 7.
- Priuli, G. (1912-1940), *I diarii*, Bologna: N. Zanichelli.

【논 저】

- 남종국(2007), 『13-14세기 지중해 해전: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36집, 서양사연구회, 3-31면.
- 최갑수(2005), 『제국에서 근대국가로: 유럽사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조망』, 세계정치 제26집,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121-149면.
- 로저 크롤리(2011), 우태영 역, 『500년 무역 대국 부의 도시 베네치아』, 서울: 다른세상.
- J. M. 홉슨(2005), 정경옥 역,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에코리브르.
- 외르크 피쉬 외 다수(2010), 황승환 역,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3: 제국주의』, 서울: 푸른역사.
- Arbel, Benjamin (2013), "Venice's Maritime Empire in the Early Modern Period." *A Companion to Venetian History, 1400-1797*, (ed. by Eric R. Dursteler), Leiden: Brill.
- Cessi, R. (1944), *Storia della repubblica di Venezia*, Milano; Messina: Principato.
- Chambers, David (1970), *The imperial age of Venice, 1380-1530*,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Crouzet-Pavan, E. (2004), *Venise triomphante: les horizons d'un mythe*, Paris: Albin

Michel.

- De Vivo, F. De Vivo (2004), "The diversity of Venice and its myths." *The Historical Journal* 47.
- Doumerc, Bernard (2002), "Les Vénitiens confrontés au retour des rapatriés de l'empire colonial d'outre-mer (fin XVe—début XVIe siècles)." *Migrations et diasporas méditerranéennes (Xe—XVIe siècles)* (ed. by Michel Balard), Paris: Publication de la Sorbonne.
- _____ (1996), "Il dominio del mar." *Storia di Venezia, Il Rinascimento, Politica e cultura* (ed. by A. Tenenti and U. Tucci), Roma; Enciclopedia Italiana.
- Ducellier, A. (1971), "Deux projets vénitiens d'assassinat du roi Zsigmond(1415~1419)." *Etudes finno-ongriennes* 4.
- Finlay, R. (1999), "The myth of Venice in Guicciardini's History of Italy: Senate orations on princes and the republic." *Medieval and Renaissance Venice* (ed. by E. E. Kittel and T. F. Madden), Urban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Fusaro, M. (2015), *Political economies of empire in the early modern Mediterranean, The decline of Venice and the rise of England 1450-17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twagen, Ruthy (2014), "Venice's policy towards the Ionian and Aegean islands, c. 1204-1423."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History*.
- Grubb, James (1986), "When myths lose power: four decades of Venetian historiography." *Journal of Modern History*.
- Hocquet, J. C. (1978-1979), *Le sel et la fortune de Venise*, Lille: Université de Lille III.
- Knapton, Michael (2013), "The Terraferma state." *A Companion to Venetian History, 1400-1797* (ed. by Eric R. Dursteler), Leiden: Brill.
- Labalme, Patricia H. (1969), *Bernardo Giustiniani: a venetian of the Quattrocento*, Roma: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 Lane, Frederic C. (1973), *Venice. A maritime republic*,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aw, J. E. (1992), "The Venetian mainland state in the fif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 McNeill, W. H. (1974), *Venice. The hinge of Europe 1081-1797*,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dden, Thomas F. Madden (2003), *Enrico Dandolo and the rise of Veni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dden, Thomas F. (2012), *Venice, A new history*, London: Viking.
- Marin, S. (2003), "The Venetian community between civitas and imperium. A project of the capital's transfer from Venice to Constantinople, according to the chronicle of Daniele Barbaro." *European Review of History*.
- Morris, J. (1980), *The Venetian empire: a sea voyage*, Harmondsworth: Penguin.
- Muir, E. (1981), *Civic ritual in Renaissance Ven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connell, Monique (2009), *Men of empire, Power and negotiation in Venice's maritime state*,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NAM, Jong Kuk (2007), *Le commerce du coton en Méditerranée à la fin du Moyen Age*, Leiden; Boston: Brill.
- Nicol, Donald MacGillivray Nicol (1988), *Byzantium and Venice: a study in diplomatic and cultur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ch, S. P. (1973), "La route du poivre vers la Hongrie médiévale." *Mélanges en l'honneur de Fernand Braudel, Histoire économique du monde méditerranéen 1450~1650*, Toulouse: Privat.
- Papacostea, S. (1971), "Kilia et la politique orientale de Sigismond de Luxembourg." *Revue Roumaine d'histoire*.
- Parry, Seth. (2008), *Fifty years of failed plans: Venice, humanism, and the Turks*, PhD. Diss.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Romano, D. (2007), *The likeness of Venice, A life of doge Francesco Foscari 1373-1457*,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Rubinstein, N. (1974), "Italian reactions to Terraferma expansion in the Fifteenth century." *Renaissance Venice* (ed. by J. R. Hale), London; Faber and Faber.
- Strömer, W. von. (1986), "Die Kontinental-perre Kaiser Sigismunds gegen Venedig 1412~1413, 1418~1433 und die Verlagerung der transkontinentalen Transportwege." *Transporti e sviluppo economico, secoli XIII~XVII* (ed. by Anna Vannini Marx), Firenze: Le Monnier.
- Tenenti, A. (1973), "The sense of space and time in the Venetian world of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Renaissance Venice* (ed. by J. R. Hale),

London: Faber and Faber.

Thiriet, F. (1959), *La Romanie vénitienne au Moyen Age*, Paris: Bibliothèque de l'Ecole Française d'Athènes et de Rome.

Tucci, U. (1994), "Le commerce vénitien du vin de Crète." *Maritime food transport* (ed. by K. Friedland), Köln: Böhlau Verlag.

Wills, G. (2001), *Venice, lion city, the religion of empire*, London; New York: Simon & Schuster.

Zorzi, A. (1980), *Una città, una repubblica, un impero, Venezia: 697-1797*, Milano: Mondadori.

원고 접수일: 2015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5년 7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Venice, a Medieval Maritime Empire
- Myth or Historical Reality?

Jong Kuk NAM*

The history of Venice itself is a myth. Numerous historians do not hesitate in labelling Venice as a maritime empire, considering that it made a great expansion of Venetian domain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in the mainland of Italy in the Later Middle Ag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whether the concept of Venice as a maritime empire is only a myth or if Venice had the power and authority fit for an empire. Venice established a kind of maritime empire called *Stato da Mar*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as the Fourth Crusade had come to conquer the Byzantine empire in 1204. Since the late Fourteenth century, Venice made an expansion towards the Italian peninsula and established *Stato da Terra*. Venice succeeded in maintaining these two foreign territories for some centuries against several great powers including the Ottoman Turk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France, and the Holy Roman empire in Europe. Venice's numerous enemies accused it of aiming toward the empire both on land and on sea. Several aspects considered, the fifteenth century Venice deserves to be called as an empire.

* Departmen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